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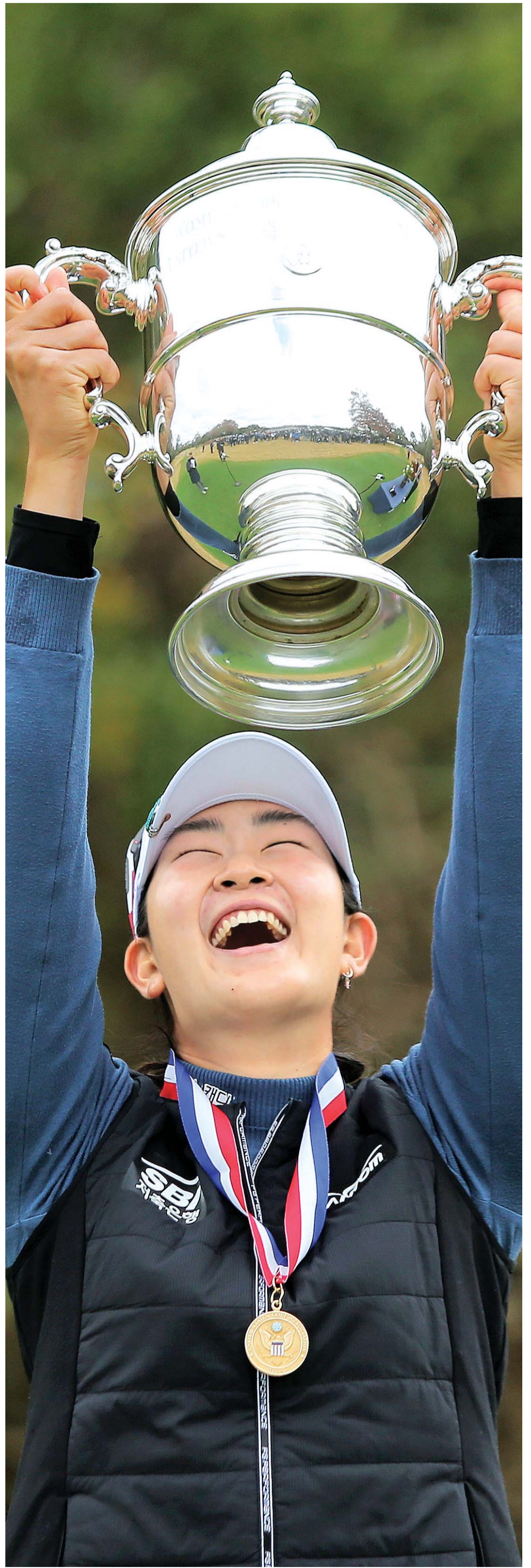
장타여왕 김아림, 첫 출전 US오픈 역전 우승

9위로 4라운드 시작 버디 6개·보기 2개...5타 차 뒤집어
 지난해 이정은 이어 한국인 2년 연속 우승...한국 선수 11번째 정상
 상금 11억원·LPGA 5년 풀시드권 획득...고진영, 1타차 준우승

한국의 장타 여왕이 미국 여자 골프 최고의 무대를 정복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장타 1위 김아림(25)은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최종 합계 3언더파 281타로 우승했다.
 한국 선수로는 11번째 US여자오픈 정상이다. 박인비(32)가 두 번 우승해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한국 선수는 김아림이 10번째다. 작년 이정은(24)에 이어 2년 연속 한국 선수 우승이다.
 김아림은 이번이 첫 US여자오픈 출전이다. 세계랭킹 94위 김아림은 올해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예선을 치르지 못한 미국골프협회(USGA)가 대회 출전 자격을 확대하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출전 기회를 잡았다.
 이전에 US여자오픈에 처음 출전해 우승까지 이른 선수는 2016년 우승자 전인지(26)를 포함해 4명뿐이다.
 4년 만에 5번째 신데렐라 탄생이다. KLPGA투어에서 2등을 올린 김아림은 작년 문영린스프링 챔피언십 이후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세계 최고의 대회에서 따냈다.

단숨에 메이저 여왕이 된 김아림은 우승 상금 100만 달러(약 11억 원)라는 거액의 상금과 내년 부터 5년 동안 LPGA투어에서 펄 자격을 얻었다. US여자오픈은 10년 동안 출전할 수 있다. 최종 라운드에서 김아림의 우승을 예상한 사람은 적었다.
 김아림은 선두 시부노 히나코(일본)에 5타 뒤진 공동 9위로 4라운드를 시작했다.
 올해 75회째를 맞은 US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5타가 넘는 타수 차이를 뒤집고 우승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5타 차이를 따라붙어 우승한 선수는 1995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비롯해 6명이다.
 김아림은 US여자오픈 최다 타수 차 역전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김아림은 5번(파5), 6번(파4), 8번 홀(파3) 버디로 역전극의 토대를 만들었다.
 10번(파4), 11번 홀(파4) 보기로 주춤한 김아림은 16~18번 홀에서 폭풍 같은 연속 버디를 몰아쳐 승부를 갈랐다.
 16번 홀(파3) 1m 버디로 선두 에이미 울슨(미국)에 1타차로 따라붙었고 17번 홀(파4) 한 뼘 떨어진 버디로 공동 선두로 올라선 김아림은 18번 홀(파4)에서 3m 내리막 버디로 1타차 선두로 대회를 마쳤다.

1타차로 추격하던 울슨은 16번 홀(파3)에서 보기를 적어내면서 김아림의 우승은 더 가까워졌다. 울슨은 17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벙커에 집어넣으며 사실상 김아림의 우승은 굳어졌다. 파를 지켰지만 18번 홀(파4) 이글이 아니면 김아림의 우승이 확정되는 상황.
 스코어 카드를 제출한 뒤 30분 넘게 기다리던 김아림은 18번 홀(파4) 울슨의 두 번째 샷이 홀에서 4m 지점에 떨어지면서 우승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을 올리며 동료 선수들과 열싸이고 기뻐했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이 2언더파 69타를 쳐 1타차 2위(2언더파 282타)에 올라 한국 선수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가졌다. 18번 홀(파4)에서 10m가 넘는 장거리 버디 퍼트가 들어간 게 순위를 준우승까지 밀어 올렸다.
 고진영은 이날 준우승으로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출전 자격을 극적으로 따냈다. 울슨은 고진영과 함께 공동 2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버디 3개, 보기 4개를 묶어 1오버파 72타를 친 울슨은 마지막 18번 홀(파4) 버디로 위안을 삼았다.
 박인비는 버디 5개를 뽑아내며 3타를 줄이는 뒷심을 발휘, 공동 6위(2오버파 286타)에 올랐고 디펜딩 챔피언 이정은(24)도 박인비와 함께 공동 6위를 차지해 체면을 지켰다. 시부노는 3타를 잃고 4위(1언더파 283타)로 밀렸다.
 3타차 공동 3위로 최종 라운드에서 나섰던 김지영은 9오버파 80타를 쳐 공동 30위(8오버파 292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여왕’의 미소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75회 US여자오픈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의 김아림(25)이 시상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최형우, 상복 터졌네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
 5대 분야 스포츠 선수 투표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



허훈을 대신해 ‘아버지’ 허재 전 감독이 대리 수상자로 나서 “아들이 나와야 하는데 시즌 중이라 내가 대신 나왔다. 아들이 동료 선수들의 인정을

받아 내년에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면 좋겠다”며 “인정받는 선수가 되면 아버지로서도 영광일 것 같다. 아들은 아직 나를 넘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넘어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시상대에 오른 박해진은 통산 5번째 수상에 성공했다.
 프로배구에선 나경복(우리카드), 양효진(현대건설)이 각각 올해의 선수로 트로피를 받았다. 양효진은 3번째 수상이다.
 프로골프 올해의 선수는 타이틀은 김태훈과 김효주(롯데)의 차지가 됐다. 김효주는 2014년에 이어 6년 만에 다시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선수가 됐다.
 올 시즌을 끝으로 23년을 누린 그라운드를 떠나는 이동국(전 전북현대)은 특별상 주인공으로 함께 했다.
 이동국은 “은퇴를 했음에도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역 시절 세 차례 받았는데 팬들이 좋아주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동료 선수들이 뽑아줘 더욱 특별한 상으로 생각했다”며 “이제 축구인으로, 스포츠인으로 여러 프로스포츠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자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최형우(KIA 타이거즈) ▲프로축구 올해의 선수=손준호(전북 현대) ▲남자프로농구 올해의 선수=허훈(부산 KT) ▲여자프로농구 올해의 선수=박해진(아산 우리은행) ▲남자프로배구 올해의 선수=나경복(우리카드) ▲여자프로배구 올해의 선수=양효진(현대건설) ▲남자프로골프 올해의 선수=김태훈 ▲여자프로골프 올해의 선수=김효주(롯데) ▲특별상=이동국(전 전북 현대)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체육시민단체, 롯데 이대호 ‘배임 혐의’ 고발

프로야구선수협회 전 회장
 판공비 3600만원 인상 논란
 김태현 전 사무총장 등 2명도



이대호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러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람과 운동’은 “이 전 회장이 재임 기간(2019년 3월 ~ 2020년 12월)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이 영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사무총장의 경우 월 250만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사람과 운동’은 또 “오 고문변호사는 자신이 알선한 김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8800만원의 고액을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며 “선수협의 총 자산규모(1억9000만원)와 연수익(20억원) 등을 고려하면, 업계 통상 회계감사 비용은 300만~400만원선이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이 15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 이대호(롯데)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모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알